

Principal's Letter

Dear parents/guardians, teachers, and students,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지난 한해동안 일궈낸 탁월한 여러가지 성취들을 축하하는 여러 행사와 축제를 나누면서 한학년을 마무리 짓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보다 나은 기회로 이끌어주는 관문과 같은 의미를 지닌 이 같은 행사들에서 서로간에 미소와 아쉬움과 격려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흐릿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여름방학이 이틀간 앞당겨지는 선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달여의 여름 방학을 맞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어떻게하면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에 관해 자주 질문을 하십니다. 방학동안 학업 보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 학생들이 학기중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어떻게 여름 방학에는 해볼 수 있을까.등등에 대해 제가 몇가지 추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우선 학생들에게 방학중에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떤 학생은 섬머를 이용해서 추가로 과목을 듣고 싶고자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모처럼 느긋한 휴식을 갖고자 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기중에 뻑뻑한 학사일정에 시달려온 만큼 방학중에는 여러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능하다면 유연하게,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추구해보도록 하십시오. TJ 학생 게시판에는 인턴이나 정부 멘토 프로그램,자원봉사 및 섬머캠프등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여러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보십시오.

3.방학중에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주십시오

학생들은 TJ에서 배우는 것이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섬머스쿨도 즐거움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습외에 여행, 가족들과 함께보내기,

스포츠 참여,독서나 하이킹등 가지 즐거운 액티비티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는 학생들에게 생활과 삶에 있어서의 균형을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개학후 새학기를 대비한 재충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학후에 있을 토론과 액티비티들을 위해 학생 전체에 지정 도서인 ‘Cradle to Cradle’을 읽게하라는 것입니다. 그물 침대에 누워, 시원한 주스 한잔을 마시면서 읽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여름을 맞아 제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학업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대한 식견을 넓히고 자신의 삶에 균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져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필

요한 정보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십시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Sincerely,

Evan Glazer, Principal